

1. 다음 <표>는 A시 연령대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A시 연령대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단위: 명, %)

	2018년 12월			2019년 12월		
	인구 수	취업자 수	고용률	인구 수	취업자 수	고용률
< 전 체 >	44,316	26,638	60.1	44,661	27,153	60.8
15~19세	2,693	184	6.8	2,545	189	7.4
20~29세	6,410	3,700	57.7	6,471	3,763	58.2
30~39세	7,329	5,549	75.7	7,212	5,551	77.0
40~49세	8,369	6,610	79.0	8,267	6,482	( )
50~59세	8,491	6,369	75.0	8,555	6,462	( )
60세 이상	11,024	4,226	38.3	11,611	4,706	40.5
< 남 자 >	21,776	15,312	70.3	21,981	15,515	70.6
15~19세	1,376	82	6.0	1,299	82	6.3
20~29세	3,170	1,765	55.7	3,220	1,867	58.0
30~39세	3,798	3,405	89.7	3,752	3,361	89.6
40~49세	4,244	3,911	92.2	4,200	3,819	( )
50~59세	4,243	3,654	86.1	4,280	3,699	86.4
60세 이상	4,945	2,495	50.5	5,230	2,687	51.4
< 여 자 >	22,540	11,326	50.2	22,680	11,638	51.3
15~19세	1,317	102	7.7	1,246	107	8.6
20~29세	3,240	1,935	( )	3,251	1,896	( )
30~39세	3,531	2,144	60.7	3,460	2,190	63.3
40~49세	4,125	2,699	65.4	4,067	2,663	65.5
50~59세	4,248	2,715	63.9	4,275	2,763	64.6
60세 이상	6,079	1,731	28.5	6,381	2,019	31.6

\*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인구 수}} \times 100$

- ① 2019년 12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00명 이상 증가하였고,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0명 이상 감소하였다.
- ② 2019년 12월 30대 남자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분보다 50대 남자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분이 더 크다.
- ③ 2019년 12월 모든 연령대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다.
- ④ 2019년 12월 20대 여자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 ⑤ 2019년 12월 40대 남자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2. 다음 <표>는 2016~2018년 월별 산지쌀값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6~2018년 월별 산지쌀값 현황

(단위: 원/100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	146,560	129,328	157,692
2월	145,864	129,372	161,792
3월	144,972	128,944	167,480
4월	144,316	127,952	171,376
5월	144,052	127,280	172,264
6월	143,576	126,840	174,096
7월	142,900	126,732	175,784
8월	141,869	129,232	177,252
9월	137,152	132,096	178,272
10월	134,076	150,892	194,772
11월	129,348	152,224	193,696
12월	128,328	154,968	193,656

- ① 2017~2018년 동안 전년동월대비 산지쌀값이 매년 상승한 달은 총 4개이다.
- ② 2017년 중 산지쌀값이 가장 비싼 달과 가장 싼 달의 산지쌀값 차이는 2016년 중 산지쌀값이 가장 비싼 달과 가장 싼 달의 산지쌀값 차이의 2배보다 크다.
- ③ 2016~2018년 동안 매년 상반기(1~6월)의 산지쌀값 평균이 그 해 하반기(7~12월)의 산지쌀값 평균보다 작다.
- ④ 2018년 4월의 전년동월대비 산지쌀값의 증가율은 2018년 11월의 전년동월대비 산지쌀값의 증가율보다 크다.
- ⑤ 2017년 9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쌀 300kg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8년 12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쌀 200kg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다.

3. 다음 <표>는 2017~2018년 운수업 업종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7~2018년 운수업 업종별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개, 천명)

업종	기업체 수		종사자 수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운수업 전체	( )	( )	1,132	1,136
육상운송업	354,266	362,877	934	940
수상운송업	606	583	24	( )
항공운송업	38	41	38	40
운송서비스업	20,364	20,236	136	132

<표 2> 2017~2018년 운수업 업종별 매출액 및 영업비용  
(단위: 십억원)

업종	매출액		영업비용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운수업 전체	( )	( )	128,434	( )
육상운송업	64,252	65,386	58,567	59,982
수상운송업	27,416	28,329	26,515	27,533
항공운송업	22,670	25,006	20,577	23,348
운송서비스업	27,887	28,211	22,775	23,678

\* 운수업 전체는 위에 제시된 4개 업종으로만 구성됨

<보 기>

- ㄱ. 2018년에 기업체 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업종은 모두 종사자 수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ㄴ. 2018년에 운수업 전체의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ㄷ. 2018년에 영업비용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운수업 전체보다 높은 업종은 항공운송업과 운송서비스업이다.
- ㄹ. 2018년에 기업체 1개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항공운송업이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수상운송업이다.
- ㅁ. 2018년에 모든 업종에서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액보다 영업비용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더 크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4. 다음 <표>는 2019년 연령대별 남녀 인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9년 연령대별 남녀 인구  
(단위: 명)

연령대	총 인구	남자 인구	여자 인구	성비
합계	51,422,506	25,768,055	25,654,451	100.4
0~4세	2,102,959	1,077,714	1,025,245	105.1
5~9세	2,303,030	1,185,280	1,117,750	106.0
10~14세	2,276,763	1,178,964	1,097,799	107.4
15~19세	2,922,140	( )	1,398,399	109.0
20~24세	( )	( )	1,645,038	113.8
25~29세	3,407,757	1,815,686	1,592,071	114.0
30~34세	3,447,773	1,804,860	1,642,913	109.9
35~39세	4,070,681	2,100,211	1,970,470	106.6
40~44세	4,037,048	2,060,634	( )	104.3
45~49세	( )	2,295,736	( )	102.6
50~54세	4,122,551	2,082,358	( )	102.1
55~59세	4,258,232	2,120,781	( )	99.2
60~64세	3,251,699	1,596,954	1,654,745	96.5
65~69세	2,315,195	1,113,374	1,201,821	92.6
70~74세	1,756,166	802,127	954,039	84.1
75~79세	1,543,849	643,508	900,341	71.5
80~84세	943,418	335,345	608,073	55.1
85세 이상	612,599	( )	( )	34.8

\* 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 수

<보 기>

- ㄱ. 40세부터 59세까지 여자 인구는 각 연령대 구간별로 200만명 이상이다.
- ㄴ. 20~24세 남자 인구는 15~19세 남자 인구보다 많다.
- ㄷ. 85세 이상의 경우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의 3배보다 많다.
- ㄹ. 총 인구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5~49세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 다음 <표>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지역별 가계 자산과 가계부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하여 A~F에 해당하는 지역(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제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2019년 지역별 가계자산 평균 및 증양값

(단위: 만원)

지역	총자산 평균	총자산 증양값	
		금융자산	실물자산
전국 평균	43,191	10,570	32,621
서울	64,240	15,889	48,351
A	41,819	9,029	32,790
B	34,387	9,485	24,902
C	47,546	11,905	35,641
D	58,784	11,355	47,429
E	50,460	8,446	42,014
F	39,306	10,246	29,060

<표 2> 2019년 지역별 가계부채 평균 및 증양값

(단위: 만원)

지역	총부채 평균	총부채 증양값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전국 평균	7,910	5,755	2,155
서울	10,635	6,196	4,439
A	7,546	5,874	1,672
B	5,003	4,081	922
C	10,217	7,664	2,553
D	10,145	7,470	2,675
E	7,289	6,313	976
F	6,672	4,860	1,812

\* 증양값은 자산 및 부채 보유가계 기준으로 산출함  
\* 순자산 평균 = 총자산 평균 - 총부채 평균

<정 보>

- 총자산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 제주이다.
- 총부채 평균과 총부채 증양값의 차이가 큰 상위 3개 지역은 서울, 대구, 제주이다.
- 총자산 평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총자산 증양값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광주, 울산이다.
- 순자산 평균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이다.
- 총부채 평균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은 상위 2개 지역은 광주, 제주이다.

	A	B	C	D	E	F
①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제주	울산
②	제주	울산	세종	경기	대구	광주
③	대구	광주	경기	세종	제주	울산
④	제주	울산	경기	세종	대구	광주
⑤	대구	울산	경기	세종	제주	광주

6. 다음 <표>는 2015~2018년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5~2018년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단위: toe)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태양열	28,485	28,469	28,121	27,395
태양광	547,430	849,379	1,516,343	1,977,148
풍력	241,847	283,455	462,162	525,188
수력	581,186	453,787	600,690	718,787
해양	103,848	104,731	104,256	103,380
지열	108,472	135,046	183,922	205,464
수열	-	4,791	7,941	14,725
바이오	2,821,996	2,765,657	3,598,782	4,442,376
폐기물	6,904,733	8,436,217	9,358,998	9,084,212
연료전지	199,369	230,173	313,303	376,304
IGCC	-	1,285	273,861	362,527
합계	11,537,366	13,292,990	16,448,379	17,837,506

\* 신재생에너지원은 위에 제시된 11개의 항목으로만 구성됨

<보 고 서>

㉠ 총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2015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수열과 IGCC를 제외하고, 2015년 대비 2018년에 가장 큰 생산량 증가율을 보이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이다. 이는 태양광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비중은 폐기물이 50% 이상으로 가장 크며, 이는 지열이 차지하는 비중의 45배가 넘는 수치로, 그 다음으로 큰 바이오와 태양광의 생산량을 합쳐도 폐기물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 생산량이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을 때, 생산량 순위가 2016년과 2018년에 동일한 신재생에너지원은 총 5개이다. ㉤ 2016년 대비 2018년 생산량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신재생에너지원은 IGCC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7. 다음 <표>는 6개 업종별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업종별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결과

(단위: 명, 억원, %)

업종	조사 대상 인원	신고소득	미신고소득 부과세액	소득 탈루율	징수율
A	2,235	45,235	14,268	37.5	87.3
B	990	27,045	9,560	40.3	67.6
C	512	30,328	5,275	28.9	60.5
D	357	17,456	12,709	54.5	57.5
E	1,256	39,357	11,523	36.7	79.2
F	835	12,789	13,924	67.8	57.8
전체	6,185	172,210	67,259	42.7	69.3

$$\text{소득 탈루율}(\%) = \frac{\text{미신고소득}}{\text{총소득}} \times 100 = \frac{\text{미신고소득}}{\text{신고소득} + \text{미신고소득}} \times 100$$

$$\text{징수율}(\%) = \frac{\text{징수세액}}{\text{미신고소득 부과세액}} \times 100 = \left(1 - \frac{\text{미징수세액}}{\text{미신고소득 부과세액}}\right) \times 100$$

<보 기>

- ㉠. 조사 대상 인원이 가장 많은 업종의 미신고소득은 2조원을 초과한다.
- ㉡. 총소득에서 신고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과 가장 낮은 업종에 속한 조사 대상 인원의 차이는 500명 미만이다.
- ㉢. 미신고소득 부과세액 중 미징수세액의 크기는 소득 탈루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소득 탈루율이 두 번째로 높은 업종보다 크다.
- ㉣. 총소득이 신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업종의 징수율은 조사 대상 전체 자영업자의 징수율보다 모두 낮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8. 다음 <표>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와 고령자가구의 가구유형별 가구 수 추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7~2047년 전체가구의 가구유형별 가구 수 추계

(단위: 만가구)

구분	2017년	2027년	2037년	2047년
전체	1,957.0	2,164.7	2,260.0	2,230.3
부부가구	309.3	402.2	468.4	479.4
부부+자녀가구	615.0	518.0	437.3	363.8
부+자녀가구	51.6	62.7	67.6	67.7
모+자녀가구	148.3	157.0	153.7	143.1
3세대이상가구	95.1	75.9	62.4	50.5
기타친족가구	148.7	197.0	225.1	256.7
비친족가구	30.7	40.5	37.9	37.1
1인가구	558.3	711.4	807.6	832.0

<표 2> 2017~2047년 고령자가구의 가구유형별 가구 수 추계

(단위: 만가구)

구분	2017년	2027년	2037년	2047년
고령자가구 전체	399.8	663.0	933.9	1,115.9
부부가구	133.9	216.4	297.4	330.2
부부+자녀가구	39.1	65.8	89.0	101.9
부+자녀가구	5.4	10.0	14.4	17.0
모+자녀가구	16.9	26.1	34.0	37.7
3세대이상가구	21.8	25.3	28.0	27.3
기타친족가구	45.0	85.7	126.3	172.2
비친족가구	3.1	6.3	9.7	14.5
1인가구	134.6	227.4	335.1	415.1

\* 고령자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보 기>

- ㉠. 전체가구에서 고령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대비 2037년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전체가구에서 2017년 대비 2047년에 가구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가구유형은 기타친족가구로 예상되고, 가구 수의 감소율이 가장 큰 가구유형은 부부+자녀가구로 예상된다.
- ㉢. 고령자가구에서 2017년 대비 2047년에 가구 수가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유형은 부+자녀가구, 기타친족가구, 비친족가구, 1인가구이다.
- ㉣. 2017년과 2027년에 고령자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구유형의 순서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9. 다음 <표>는 2013~2018년 국내 등록차량의 연료 종류별 분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3~2018년 국내 등록차량 연료 종류별 분류 현황  
(단위: 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19,400,864	20,117,955	20,989,885	21,803,351	22,528,295	23,202,555
휘발유차	9,339,738	9,587,351	9,808,633	10,092,399	10,369,752	10,629,296
경유차	7,395,739	7,938,627	8,622,179	9,170,456	9,576,395	9,929,537
LPG차	2,665,387	2,591,977	2,559,073	2,540,496	2,582,148	2,643,722

\* 국내 등록차량의 연료 종류는 휘발유, 경유 및 LPG 밖에 없다고 가정함

- ① 2013~2018년 동안 전체 국내 등록차량 중 경유차 및 LPG차 수를 합친 비율은 매년 50% 이상이다.
- ② 2014~2018년 동안 전체 국내 등록차량 수, 휘발유차 수, 경유차 수는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 ③ 연료 종류별 등록차량 수의 2014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경유차, 휘발유차, LPG차 순으로 크다.
- ④ 2013년 대비 2014년 경유차 수의 증가율은 2014년 대비 2015년 경유차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 ⑤ 전체 국내 등록차량 수 대비 경유차 수의 비율은 2018년이 2014년보다 크다.

10. 다음 <표>는 2013~2015년 A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3~2015년 A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단위: CO<sub>2</sub>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정	배출량	( )	195,237	( )
	증가율	-	5.0%	4.3%
공공	배출량	39,762	43,280	45,703
	증가율	-	8.8%	( )
상업	배출량	269,552	280,946	( )
	증가율	-	4.2%	5.3%
산업	배출량	189,083	198,992	208,412
	증가율	-	5.2%	4.7%
합계	배출량	( )	( )	753,583
	증가율	-	5.0%	4.9%

\* 증가율(%) =  $\frac{\text{해당 연도 배출량} - \text{전년도 배출량}}{\text{전년도 배출량}} \times 100$

\*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은 가정부문, 공공부문, 상업부문, 산업부문으로만 구성됨

<보 기>

- ㄱ. 2013년 A시의 가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A시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다.
- ㄴ. 2013년 A시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70만 CO<sub>2</sub>톤을 넘는다.
- ㄷ. 2013년 대비 2015년 A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가정부문이다.
- ㄹ. 2015년에 A시의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큰 부문은 공공부문이며, 증가량이 가장 큰 부문은 상업부문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1. 다음 <표>는 수출입 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2018년 수출입 기업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활동기업	진입기업	퇴출기업
수출	97,388	26,791	24,635
수입	188,182	52,459	45,695
무역	228,676	59,588	52,123

\* 무역기업 수 = 수출기업 수 + 수입기업 수 - 수출입 동시에 하는 기업 수

\* 해당 연도 활동기업 수 = 전년도 활동기업 수 + 해당 연도 진입기업 수 - 해당 연도 퇴출기업 수

<표 2> 2014~2017년 수출입 활동기업 현황

(단위: 개, 억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	기업 수	61,534	74,317	83,816	( )
	수출액	1,699	2,837	4,651	5,721
수입	기업 수	91,361	122,020	147,204	( )
	수입액	1,517	2,485	4,029	4,585

- ① 2018년 진입기업 중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기업 수는 2만 개 이상이다.
- ② 2017년 수입 활동기업 수는 수출 활동기업 수의 2배 이하이다.
- ③ 2018년 무역 활동기업 수 대비 수출 활동기업 수의 비율은 2017년 무역 활동기업 수 대비 수출 활동기업 수의 비율보다 크다.
- ④ 2014년 대비 2015년에 수입기업당 수입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기업당 수출액은 감소하였다.
- ⑤ 2015~2017년 동안 수입기업당 수입액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12. 다음 <표>는 2019년 12개 국가의 인구 및 국내총생산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9년 12개 국가의 인구 및 국내총생산  
(단위: 명, 백만달러)

국가명	인구	국내총생산
필리핀	109,581,708	330,910
파키스탄	220,892,340	314,588
칠레	19,116,201	298,231
핀란드	5,540,720	276,743
방글라데시	164,689,383	274,025
베트남	97,338,579	245,214
그리스	10,423,054	218,032
뉴질랜드	4,822,233	204,924
카타르	2,881,053	191,362
헝가리	9,660,351	157,883
에콰도르	17,643,054	108,398
슬로바키아	5,459,642	105,905
평균	55,670,693	227,185

\* 평균값과 순위는 제시된 국가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인구가 많을수록, 국내총생산이 많을수록 순위가 높음

<보 기>

- ㄱ. 제시된 국가 중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핀란드이다.
- ㄴ. 제시된 국가 중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적은 나라의 인구는 평균 인구보다 적다.
- ㄷ. 그리스는 인구 순위가 국내총생산 순위보다 높다.
- ㄹ. 인구 순위 상위 5개 국가에 속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000달러를 넘는 국가가 존재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3. 다음 <표>는 2018~2019년 국내 제조사 전체 자동차 판매량 및 2019년 모델별 판매량 순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8~2019년 국내 제조사 전체 자동차 판매량  
(단위: 대)

제조사	2018년	2019년
가	721,078	741,842
나	531,700	520,205
다	93,317	76,471
라	90,369	86,859
마	109,140	107,789
전체 판매량	1,545,604	1,533,166

<표 2> 2019년 국내 제조사 자동차 모델별 판매량 순위 (상위 20개)  
(단위: 대)

순위	제조사	모델	판매량
1	가	A1	98,401
2	가	A2	86,198
3	가	A3	73,641
4	나	B1	63,706
5	가	A4	62,104
6	나	B2	59,017
7	가	A5	58,806
8	나	B3	52,325
9	가	A6	52,299
10	나	B4	50,364
11	라	D1	47,640
12	나	B5	46,531
13	나	B6	44,387
14	마	E1	41,330
15	가	A7	40,867
16	가	A8	36,758
17	다	C1	35,513
18	마	E2	35,428
19	가	A9	33,531
20	나	B7	32,453
합계			1,051,299

<보 기>

- ㄱ. 2018년과 2019년 각각 가 제조사와 나 제조사의 자동차의 판매량을 합하면 그 해 국내 제조사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80% 이상이다.
- ㄴ. 2019년 판매량 순위 1~6위인 국내 제조사 자동차 모델별 판매량의 합은 2019년 국내 제조사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 이상이다.
- ㄷ. 2019년 판매량 순위 10위 안에 드는 국내 제조사 자동차 모델별 판매량의 합을 제조사별로 비교했을 때, 가 제조사가 나 제조사의 2배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4. 다음 <표>는 2019년 11월 국회 소속기관별 직원 현원 현황과 국회사무처 직원유형별 정원, 현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9년 11월 국회 소속기관별 직원 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	4	-	1	1
일반직	1,240	301	129	121
별정직	2,530	1	1	-
임기제	91	37	5	11
공무직	426	19	42	37
인 턴	270	-	-	-
합계	4,561	358	178	170

\* 국회 소속기관에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만 해당됨

<표 2> 2019년 11월 국회사무처 직원유형별 정원, 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정무직	4	4	
일반직	1,255	1,240	
별정직	의원보좌직	2,344	
	사무처	121	
	교섭단체	A당	29
		B당	26
C당		10	
임기제	-	91	
공무직	-	426	
인 턴	-	270	
합계	3,850	4,561	

<보 기>

- ㄱ. 국회 소속기관 전체 직원 현원 중 ‘일반직’의 비중은  $\frac{1}{3}$ 보다 크다.
- ㄴ. 국회사무처 ‘일반직’ 현원 대비 ‘공무직’ 현원 비중은 국회사무처 전체 정원 대비 ‘일반직’ 정원 비중보다 작다.
- ㄷ. 국회사무처 ‘별정직’ 직원의 정원 대비 현원 비중은 ‘사무처’가 ‘교섭단체(A당+B당+C당)’보다 작다.
- ㄹ. ‘임기제’를 제외한 국회입법조사처 현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전체 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임기제’를 제외한 국회도서관 현원이 국회도서관 전체 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15. 다음 <표>는 A, B, C 산업의 시장규모와 집중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산업별 시장규모

(단위: 조원, 개)

구분	A산업		B산업		C산업	
	총 매출액	기업 수	총 매출액	기업 수	총 매출액	기업 수
2016년	40	245	90	123	160	356
2017년	50	267	100	110	180	370
2018년	60	280	70	89	230	400

<표 2> 산업별 집중률

(단위: %)

구분	A산업			B산업			C산업		
	CR3	CR5	CR10	CR3	CR5	CR10	CR3	CR5	CR10
2016년	30	40	50	20	25	30	15	20	25
2017년	36	42	54	18	22	25	20	29	34
2018년	45	52	60	17	20	25	24	31	36

\* 집중률(CR: Concentration Rate): 특정 산업에서 경쟁의 제한 또는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계량화한 수치로서, CRk = 해당 산업의 매출액 규모 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의미함. 예를 들어, CR3 = 매출액 1위 기업 시장점유율 + 매출액 2위 기업 시장점유율 + 매출액 3위 기업 시장점유율임

\* 시장점유율(%) =  $\frac{\text{해당기업의 매출액}}{\text{해당산업의 총 매출액}} \times 100$

<보 기>

- ㄱ. 2016년에 시장점유율 상위 6위부터 상위 10위까지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가 가장 큰 산업은 A산업이다.
- ㄴ. 2018년에 시장점유율 상위 3개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가 시장점유율 상위 4위부터 상위 10위인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의 2배 이상인 산업은 2개이다.
- ㄷ. B산업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ㄹ. 2016년과 2017년에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기업의 업체 1개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동일하다.
- ㄹ. 2016년 대비 2017년에 시장점유율 상위 3개 기업의 업체 1개당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산업은 2개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ㄹ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ㄹ

16. 다음 <표>는 A 완구회사의 생산원가, 판매비 및 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A 완구회사의 생산원가, 판매비 및 가격

(단위: 원)

품목	생산원가	판매비	소비자 판매가격	대형마트 납품가격
바비인형	3,600	900	5,000	( )
양배추인형	4,350	240	( )	( )
곰인형	5,500	500	7,500	6,900
강아지인형	3,200	200	4,000	( )
호두까기인형	5,000	440	( )	( )

\* 이윤 = 판매가격(또는 납품가격) - 생산원가 - 판매비(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포함)

\* 이윤율(%) =  $\frac{\text{이윤}}{\text{판매가격(또는 납품가격)}} \times 100$

<정 보>

A 완구회사는 위와 같이 5개 인형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A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는 판매비가 발생하지만,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는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는 납품가격을 기준으로 이윤과 이윤율을 계산한다.

- 강아지인형을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의 이윤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이윤이 같다면, 강아지인형의 대형마트 납품가격은 3,800원이다.
- 바비인형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이윤율과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의 이윤율이 같다면, 바비인형의 대형마트 납품가격은 강아지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과 같다.
- 양배추인형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이윤율과 강아지인형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이윤율이 같다면, 양배추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5,400원이다.
- 곰인형과 호두까기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판매비의 비율이 같다면, 호두까기인형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이윤율은 곰인형을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의 이윤율보다 작다.
- 호두까기인형을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의 이윤율과 바비인형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이윤율이 같다면, 호두까기인형을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의 이윤은 500원 이하이다.

17. 다음 <표>는 청약가점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각 항목의 합으로 계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다. 또한, 주택보유자라고 명시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 무주택자라고 가정한다.)

<표>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8년 이상 9년 미만	18
	1년 이상 2년 미만	4	9년 이상 10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6	10년 이상 11년 미만	22
	3년 이상 4년 미만	8	11년 이상 12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26
	5년 이상 6년 미만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28
	6년 이상 7년 미만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수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1년 미만	2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3	10년 이상 11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4	11년 이상 12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5	12년 이상 13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6	13년 이상 14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7	14년 이상 15년 미만	16
	6년 이상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8년 미만	9			

\* 무주택기간 가점은 현재 무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됨

\* 청약가점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무주택기간이 8년, 부양가족수가 4명,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인 A의 청약가점은 44점이다.
- B와 C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같을 경우, 무주택기간이 15년이고 부양가족수가 5명인 B가 무주택기간이 13년이고 부양가족수가 6명인 C보다 당첨확률이 높다.
- 부양가족수가 7명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인 주택보유자 D는 무주택기간이 15년, 부양가족수가 2명,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인 E보다 청약가점이 높다.
- F와 G의 무주택기간이 같을 경우, 부양가족수가 5명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인 F가 부양가족수가 4명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8년인 G보다 당첨확률이 낮다.
-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H의 청약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20점을 넘을 수 없다.

18. 다음 <표>는 5개 도(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2015~2019년 도소매업 지역총생산 및 2019년 도별·종사자규모별 도소매업 종사자 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2019년 도소매업 지역총생산이 가장 많은 도(㉠)와 1~4명 규모 도소매업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표 1> 2015~2019년 도별 도소매업 지역총생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A	1,945,409	1,998,232	2,016,403	2,045,159	2,139,587
B	1,904,576	1,902,884	1,891,602	1,888,712	1,934,117
C	2,234,276	2,191,863	2,169,170	2,186,575	2,271,278
D	2,786,775	2,715,955	2,695,375	2,628,334	2,604,425
E	2,326,650	2,310,752	2,300,319	2,293,589	2,289,782

<표 2> 2019년 도별·종사자규모별 도소매업 종사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A	80,149	49,097	7,369	6,611	4,596
B	82,403	52,003	7,708	6,244	3,822
C	97,564	65,400	7,716	5,878	4,245
D	104,723	65,726	9,107	7,456	5,671
E	98,692	63,589	8,197	6,264	6,411

<조 건>

- 강원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소매업 지역총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2019년 50명 이상 규모 도소매업 종사자 수 대비 1~4명 규모 도소매업 종사자 수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이다.
- 2017년 도소매업 지역총생산의 전년대비 변화율의 절댓값이 가장 큰 지역은 충청남도이다.
- 2019년 전체 도소매업 종사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이다.

- |   |      |      |
|---|------|------|
|   | ㉠    | ㉡    |
| ① | 강원도  | 충청북도 |
| ② | 강원도  | 충청남도 |
| ③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 ④ | 전라북도 | 충청북도 |
| ⑤ | 전라북도 | 충청남도 |

19. 다음 <표>는 2014~2018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4~2018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가정보호					시설보호				
	입양	입양 전 위탁	가정 위탁	소년 소녀 가정	소계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장애 아동 시설	일시 보호 시설	소계
2014년	393	388	1,300	13	2,094	1,818	506	10	566	2,900
2015년	239	376	1,206	0	1,821	1,412	458	13	799	2,682
2016년	243	425	1,022	6	1,696	1,736	592	11	548	2,887
2017년	285	423	994	2	1,704	1,467	625	19	310	2,421
2018년	174	357	937	1	1,469	1,300	648	7	494	2,449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위 <표>에서 언급된 보호조치 외에는 없음

<보 기>

- ㄱ. 2014~2018년 동안 시설보호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중 '양육시설'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의 비중은 매년 60% 이상이다.
- ㄴ. 2014~2018년 동안 매년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와 '일시보호시설'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의 합은 그 해 '양육시설'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보다 크다.
- ㄷ. 2014~2018년 동안 매년 '입양'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와 '입양 전 위탁'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의 합은 그 해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의 절반 이상이다.
- ㄹ. 2014~2018년 동안 '공동생활가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가 시설보호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다.
- ㅁ. 2014~2018년 동안 보호조치를 받는 전체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보호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대상아동의 비중이 40%를 넘는 해는 총 3번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20. 다음 <표>는 2015~2019년 A국의 도로투자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중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5~2019년 A국 사업별 도로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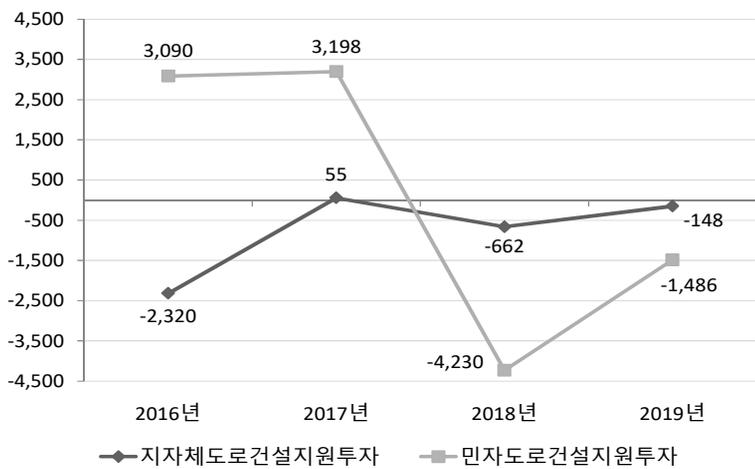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89,345	83,912	90,167	82,802	73,534
고속도로건설투자	16,234	14,766	15,226	13,927	13,649
국도건설투자	42,348	38,351	36,511	34,925	26,587
도로관리투자	11,164	10,426	14,808	15,220	16,202
도로안전개선	1,325	1,189	1,452	1,687	1,856
도로운영	691	666	595	542	550
도로보수	5,859	5,318	9,235	9,473	10,300
도로병목지점개선	1,582	1,470	1,590	1,613	1,470
위험도로개선	627	739	845	880	1,000
첨단도로교통체계	630	611	642	581	594
자전거도로구축	126	78	77	77	77
도로건설관리종합연구	324	355	354	365	351
국제협력기구운영 등	-	-	18	2	4
지자체도로건설지원투자	8,541	6,221	6,276	5,614	5,466
민자도로건설지원투자	11,058	14,148	17,346	13,116	1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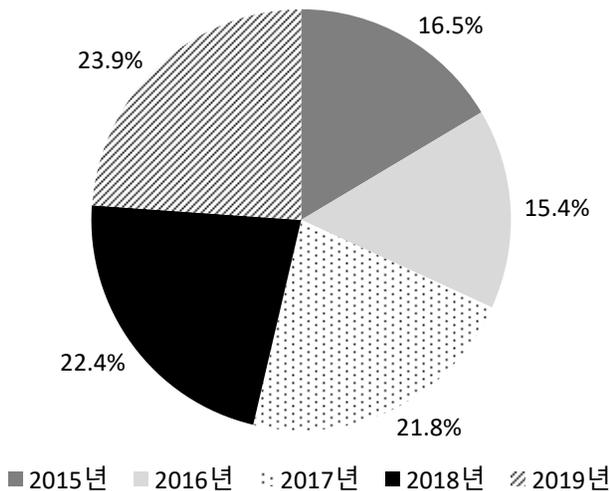
※ 총액계상사업: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도로안전개선·도로보수·민자도로건설지원투자 사업이 이에 해당함  
 ※ 보조사업: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도로건설지원투자·민자도로건설지원투자 사업이 이에 해당함

① 2016~2019년 A국 도로분야 보조사업 투자실적의 사업별 전년대비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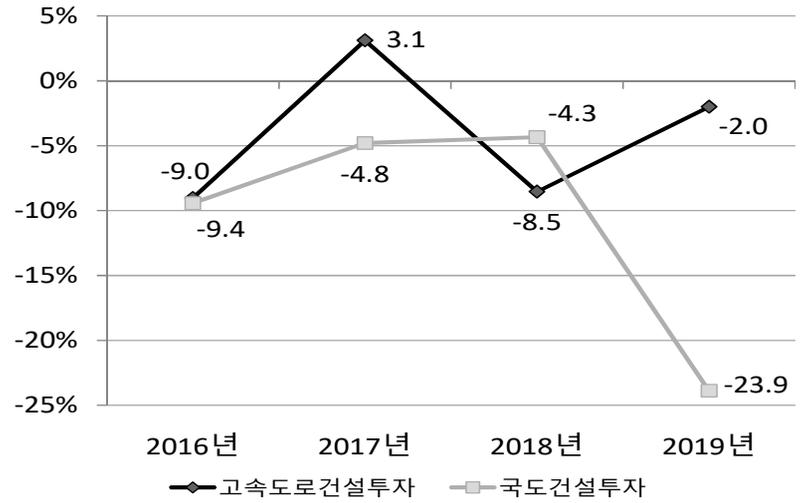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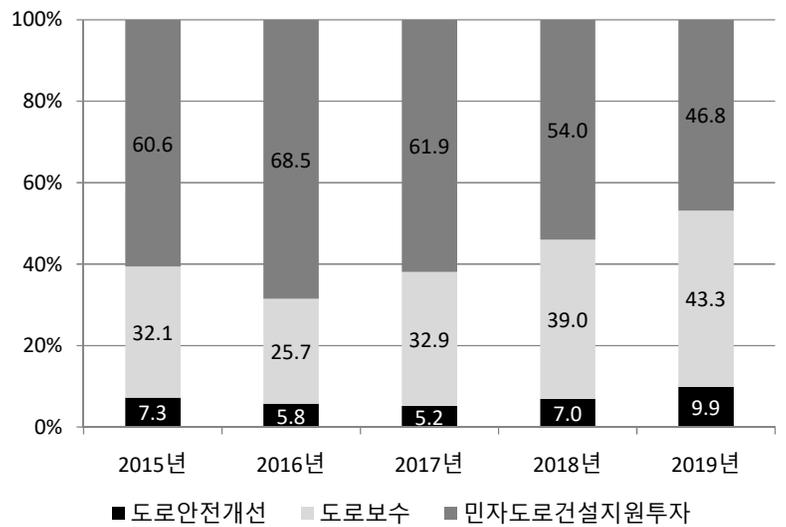
② 2015~2019년 A국 도로관리투자 실적의 연도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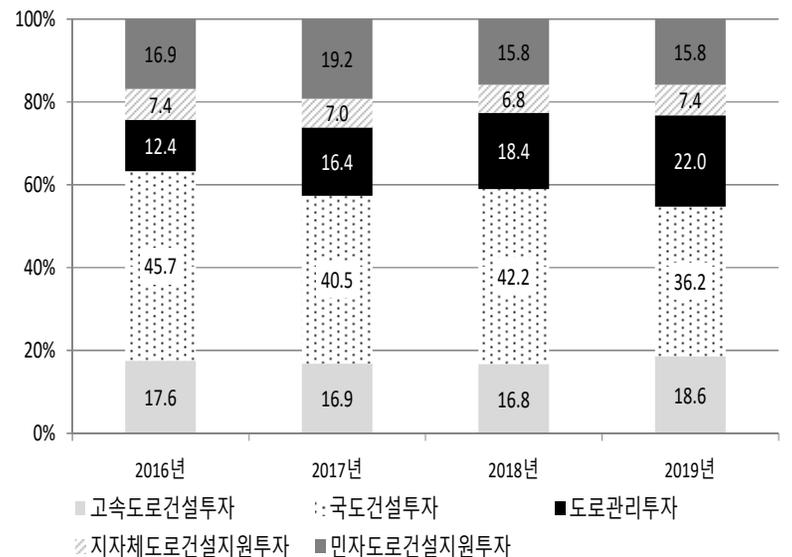
③ 2016~2019년 A국 고속도로건설투자 및 국도건설투자 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율



④ 2015~2019년 A국 도로분야 총액계상사업 투자실적의 사업별 구성비



⑤ 2016~2019년 A국 사업별 도로투자실적 비율



21. 다음 <표>는 인스턴트 건면 종합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인스턴트 건면 종합평가

구분	제품명	판매사	영양성분 (제품 1개당 함량)							내용량(g)		가격(원)
			열량(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나트륨(mg)			표시	측정	
							전체	국물	면/건더기			
비유탄라면	가	A	358	70	10	4	1,767	1,450	317	97	99	796
	나	B	381	76	8	5	1,603	1,082	521	103	105	1,363
칼국수	다	A	348	74	9	2	1,658	1,367	291	98	100	720
	라	A	383	79	10	3	1,493	959	534	103	104	1,345
	마	B	361	79	9	1	1,544	1,163	381	100	102	700
	바	B	458	99	12	2	1,894	1,256	638	130	129	1,500
	사	A	354	75	10	2	2,143	1,574	569	101	106	1,450
	아	A	389	82	13	1	2,006	1,412	594	110	113	980
	자	B	436	80	11	8	1,558	988	570	120	122	1,363
	차	A	367	77	8	3	1,364	911	453	100	104	1,363

\* <표>에 제시된 제품 이외의 인스턴트 건면은 없음

- ① 모든 제품에서 나트륨 전체 함량의 70% 이상이 국물에 포함되어 있다.
- ② 표시된 내용량 1g당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은 측정된 내용량 1g당 가격도 가장 비싸다.
- ③ 칼국수 제품의 탄수화물·단백질·지방 각각의 평균 함량은 비유탄라면 제품의 해당 평균 함량보다 많다.
- ④ 비유탄라면 제품의 평균 열량보다 더 높은 열량을 지닌 칼국수 제품은 총 5개이다.
- ⑤ B사 제품의 평균 열량과 평균 나트륨 함량은 각각 A사 제품의 평균 열량과 평균 나트륨 함량보다 많다.

22. 다음 <표>는 2019년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9년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량

(단위: 톤)

부문	전국	수도권
발전	46,570 (13.4%)	5,391 (9.0%)
에너지산업 연소	46,570	5,391
산업	137,045 (39.5%)	6,767 (11.3%)
제조업 연소	80,591	2,786
생산공정	52,969	3,023
폐기물처리	3,485	958
수송	100,876 (29.0%)	28,649 (47.9%)
도로이동오염원	46,756	17,594
비도로이동오염원	54,120	11,055
생활	62,785 (18.1%)	19,034 (31.8%)
비산먼지	17,286	5,480
생물성 연소	14,971	2,165
비산업 연소	16,109	6,022
기타 먼오염원	303	118
에너지 수송 및 저장	724	197
유기용제 사용	13,392	5,052

\* 미세먼지 배출량 부문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으로만 구성됨  
 \* ( )는 전국·수도권 총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각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을 의미함

<보 기>

- ㄱ. 전국 총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수도권 총 미세먼지 배출량은 15% 이상이다.
- ㄴ. 전국 생활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생물성 연소' 미세먼지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 총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과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합보다 크다.
- ㄷ. 전국 '비산업 연소'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수도권 '비산업 연소' 미세먼지 배출량의 비율은 전국 '기타 먼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수도권 '기타 먼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비율보다 작다.
- ㄹ. 전국 생활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이 15% 감소하는 경우가 수도권의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이 50% 감소하는 경우보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량이 더 적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3. 다음 <표>는 시·도별 화재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시·도별 화재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행정구역	2016년			2018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전국	43,413	306	1,718	42,338	369	2,225
서울	6,443	40	236	6,368	53	307
부산	2,199	17	128	2,471	14	129
대구	1,739	11	83	1,440	18	66
인천	1,790	10	94	1,620	21	98
광주	956	7	23	860	7	22
대전	974	7	40	1,094	12	73
울산	928	16	53	887	5	27
경기	10,147	70	510	9,632	62	537
강원	2,315	20	99	2,228	14	132
충북	1,379	12	38	1,414	19	93
충남	2,825	12	46	2,605	21	52
전북	1,983	17	39	2,044	21	112
전남	2,454	21	89	2,635	17	81
경북	2,651	14	113	2,686	22	158
경남	3,756	29	101	3,482	56	265
제주	574	1	14	636	4	23
세종	300	2	12	236	3	50

\* 사상자 수 = 사망자 수 + 부상자 수

<보 기>

- ㄱ.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전국 사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감소하였다.
- ㄴ.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서울, 인천, 경기 각각의 사상자 대비 부상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 ㄷ.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한 시·도는 7곳이다.
- ㄹ.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화재 발생건수가 감소한 시·도 중 감소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대구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4. 다음 <표>는 2019년 국가별 지니계수 및 사회복지예산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9년 국가별 지니계수 및 사회복지예산비율

대륙	국가	지니계수	사회복지예산비율(%)
아시아	대한민국	31.6	11.1
	일본	32.1	21.9
	이스라엘	38.9	16.0
	평균	34.2	( )
북아메리카	미국	41.5	18.9
	캐나다	( )	17.3
	멕시코	41.9	12.5
	평균	40.2	( )
유럽	아일랜드	31.8	14.4
	이탈리아	35.4	27.9
	룩셈부르크	33.8	22.4
	네덜란드	28.2	16.7
	헝가리	30.4	19.4
	폴란드	31.8	21.1
	스위스	( )	16.0
	평균	32.0	19.7
전체 평균		34.4	( )

\* 대륙별 평균 지니계수·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제시된 대륙 내 국가들의 지니계수·사회복지예산비율의 단순 합을 제시된 대륙 내 국가의 수로 나눈 것임

\* 전체 평균 지니계수·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제시된 전체 국가들의 지니계수·사회복지예산비율의 단순 합을 제시된 전체 국가의 수로 나눈 것임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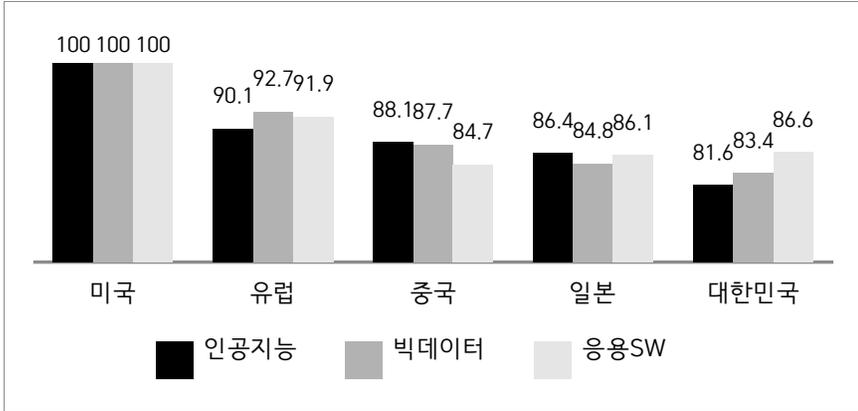
- ㄱ. 스위스의 지니계수는 캐나다의 지니계수보다 크다.
- ㄴ.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예산비율은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예산비율보다 높다.
- ㄷ. 헝가리의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전체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예산비율보다 낮다.
- ㄹ. 제시된 국가 중 지니계수가 큰 상위 5개 국가에 포함되면서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높은 상위 5개 국가에도 포함되는 국가는 1개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5. 다음 <그림>과 <표>는 전세계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의 상대적 수준과 인재·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림>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의 상대적 수준

(단위: 점)



\* 상대적 수준이란 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의 수준을 수치화한 것임

<표 1> 전세계 인공지능 핵심인재 500명의 출신국가별 비중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미국	14.6%	6	싱가포르	6.0%
2	중국	13.0%	7	스페인	5.8%
3	스위스	9.4%	8	홍콩	5.6%
4	독일	7.2%	9	호주	5.4%
5	영국	6.2%	10	대한민국	3.8%

<표 2> 전세계 인공지능 전문인력 22,400명의 활동국가별 비중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미국	46.0%	6	일본	3.3%
2	중국	11.3%	7	프랑스	3.1%
3	영국	6.6%	8	호주	2.6%
4	독일	4.2%	9	인도	2.5%
5	캐나다	3.6%	10	대한민국	1.8%

<보 고 서>

㉠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의 상대적 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과 비교할 때 3개 분야 모두 낮으며, ㉡ 중국에 비해서도 빅데이터와 응용SW 기술이 각각 4.3점, 1.9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18.4점으로 이를 따라잡는 데는 약 2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공지능 인재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계 인공지능 핵심인재 500명 중 상위 5개국 출신이 300명 이상이다. ㉣ 전세계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22,400명 중 상위 3개국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15,000명 이상이며,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400명 이상이다.

㉤ 전세계 인공지능 핵심인재 출신국가 비중 순위와 전문인력 활동국가 비중 순위를 비교하면 싱가포르, 홍콩, 스페인, 스위스는 핵심인재의 출신국가 비중 순위가 더 높고, 인도,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는 전문인력의 활동국가 비중 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26. 다음 <표>는 2011~2016년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및 재범률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1~2016년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및 재범률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가정폭력 재범률
		계	구속	불구속	
2011년	6,848	7,272	51	7,221	32.9
2012년	8,762	9,345	( )	9,272	32.2
2013년	16,785	18,000	( )	17,738	11.8
2014년	17,557	18,666	( )	18,416	11.1
2015년	40,822	47,549	( )	46,943	4.9
2016년	45,614	53,476	( )	52,967	3.8

\* 검거인원 = 구속인원 + 불구속인원

\* 재범률(%) =  $\frac{\text{재범건수}}{\text{검거건수}} \times 100$

\* 구속률(%) =  $\frac{\text{구속인원}}{\text{검거인원}} \times 100$

<보 기>

- ㄱ.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구속인원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ㄴ. 주어진 기간 동안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구속률이 가장 높은 해는 2015년이다.
- ㄷ. 주어진 기간 동안 재범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2년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7. 다음 <표>는 2018년 지역별 도로 보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E에 해당하는 지역(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남)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8년 지역별 도로 보급 현황

지역	면적 (km <sup>2</sup> )	인구 (천명)	자동차 대수 (천대)	도로 연장 (km)	개통 도로 (km)	포장 도로 (km)	포장률 (%)
서울	605	9,766	3,125	8,273	8,273	8,273	100.0
A	1,063	2,955	1,578	3,271	3,244	3,160	97.4
B	540	1,490	670	2,140	2,140	2,140	100.0
울산	1,061	1,156	558	2,142	2,136	2,115	99.0
C	16,828	1,543	766	9,953	( )	7,753	88.4
D	10,540	3,374	1,694	12,650	( )	9,943	91.0
E	8,226	2,126	1,094	7,160	( )	6,249	92.5

\* 포장률 (%) =  $\frac{\text{포장도로}(km)}{\text{개통도로}(km)} \times 100$

<조 건>

- 자동차 한 대당 도로연장이 가장 짧은 지역은 인천이다.
- 대전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인천보다 길고 서울보다 짧다.
- 충남의 개통도로는 서울의 개통도로보다 짧다.
- 강원 인구 1인당 도로연장은 경남 인구 1인당 도로연장보다 길다.

	A	B	C	D	E
①	인천	대전	강원	경남	충남
②	인천	대전	경남	강원	충남
③	인천	강원	대전	충남	경남
④	대전	인천	강원	경남	충남
⑤	대전	인천	경남	충남	강원

28. 다음 <표>는 2015~2018년 지역별 교육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5~2018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개최횟수

(단위: 명, 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광주	참여인원	1,494	2,596	3,421	2,924
	개최횟수	63	108	124	149
부산	참여인원	358	500	1,354	1,730
	개최횟수	20	36	62	86
대구	참여인원	1,887	2,360	2,476	2,064
	개최횟수	124	161	159	138
대전	참여인원	-	258	2,384	2,850
	개최횟수	-	17	108	151

<표 2> 2015~2018년 전시 프로그램 참여인원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산	2,146	4,282	9,134	10,734
대구	4,402	2,708	351	171
대전	-	755	877	1,504

<보 기>

- ㄱ. <표 1>에 제시된 지역 중 2018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회당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이다.
- ㄴ. 광주의 2015년 대비 2018년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최횟수의 증가율은 광주의 2015년 대비 2018년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증가율에 비해 작다.
- ㄷ. 2017년과 2018년 각각 대구와 대전의 전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합은 부산의 전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15%보다 많다.
- ㄹ. 부산의 2016년 대비 2018년 전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증가율은 대전의 2016년 대비 2018년 전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증가율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29. 다음 <보고서>는 방송매체 이용 행태 현황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고서>

일상생활의 필수매체로 TV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2013년 조사에서는 46.3%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9%p 높았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57.2%로 TV를 선택한 응답자보다 19.9%p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에서는 2013년 TV를 필수매체로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TV에 비해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필수매체 인식비율의 우위 역전이 없었던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있었다.

2018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연령대별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은 20대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대가 36.3%, 30대가 28.4%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에서 TV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스마트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스마트폰의 비중이 TV의 비중을 역전하였다. 2014년 이후 조사에서 TV의 비중과 스마트폰의 비중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30분 미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2%p 감소하였지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대비 2018년에 '1시간 30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율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율의 1.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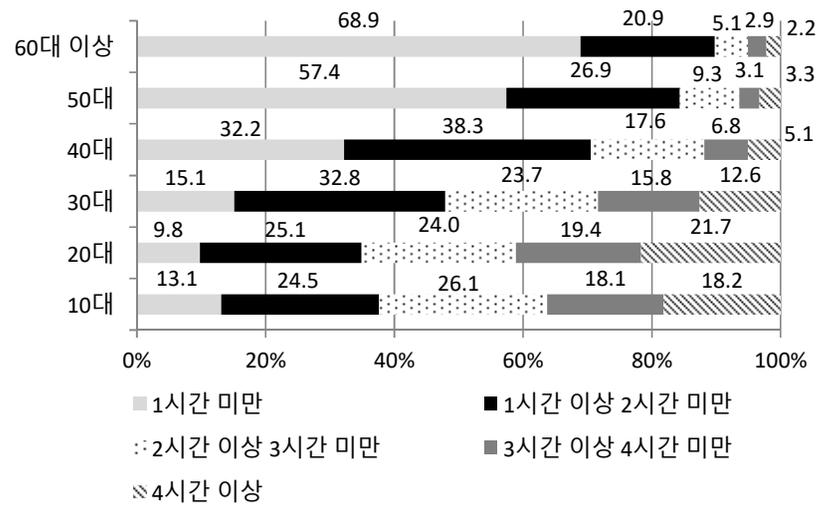
ㄱ. 연령대별 필수매체 인식비율

(단위: %)

구분	TV		스마트폰	
	2013년	2018년	2013년	2018년
10대	14.8	7.6	61.8	82.5
20대	13.9	11.4	67.3	81.5
30대	25.3	16.6	51.3	76.0
40대	44.5	23.8	38.4	71.7
50대	73.7	48.2	13.4	51.1
60대 이상	90.5	72.8	3.7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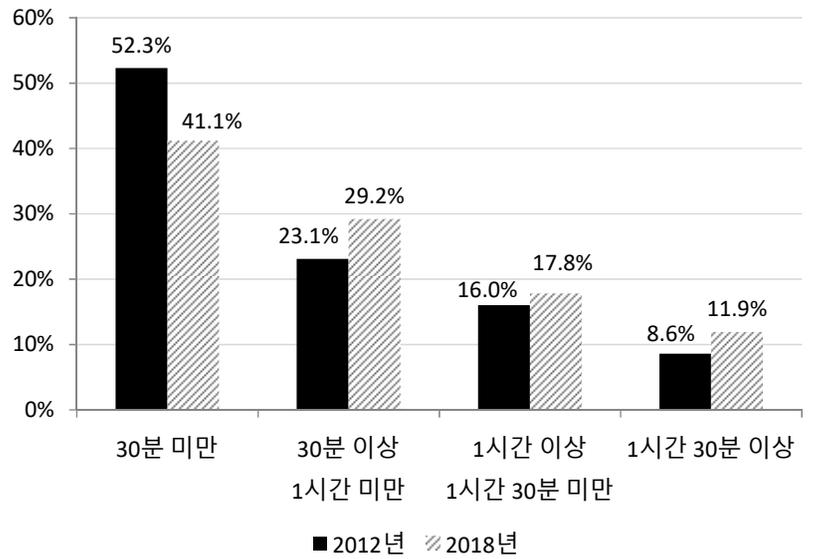
<보기>

ㄴ. 2018년 연령대별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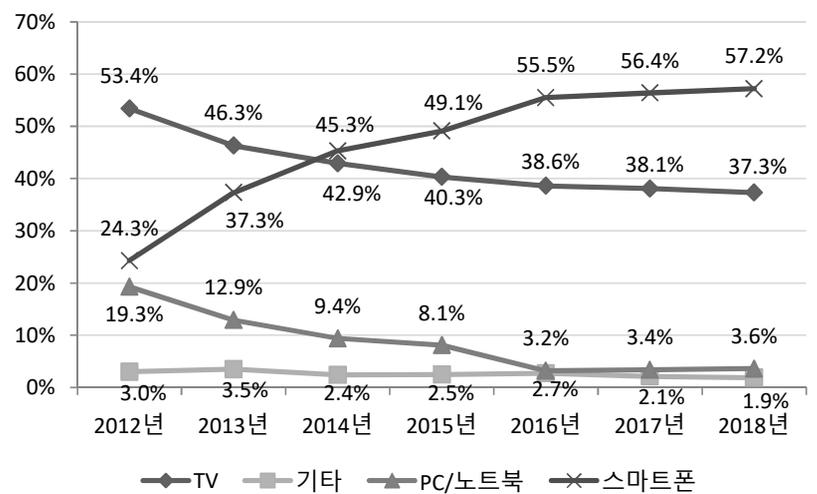
\* 스마트폰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ㄷ. 연도별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응답 비율



\* 스마트폰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ㄹ. 연도별 필수매체 인식비율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30. 다음 <표>는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단위: 만원/m<sup>2</sup>)

연도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2006	305.6	362.8	133.0	493.5	577.7	329.5	822.7	396.2	433.4
2007	235.1	330.7	135.4	470.3	597.1	375.5	776.4	425.5	441.8
2008	187.4	355.0	135.1	557.8	572.0	470.3	772.8	461.3	485.6
2009	235.4	391.5	157.6	591.4	701.3	485.2	849.4	530.5	513.7
2010	251.5	389.8	173.9	603.6	682.3	453.0	878.8	495.8	533.5
2011	268.5	383.0	199.1	593.4	649.7	459.9	899.2	506.4	502.7
2012	277.7	379.8	207.6	571.8	656.1	426.6	843.9	480.8	492.3
2013	298.0	380.1	225.4	547.2	630.7	447.4	810.7	499.9	488.9
2014	315.2	403.0	238.9	581.1	671.9	466.8	862.8	531.7	504.8
2015	357.3	452.9	253.6	645.2	734.6	509.9	967.1	580.3	562.3
2016	389.7	491.0	272.0	689.4	785.8	558.4	991.6	659.8	611.5
2017	405.9	538.3	264.7	807.4	885.9	615.9	1,173.6	750.6	703.1
2018	364.2	468.5	271.5	820.8	946.0	701.8	1,256.1	786.1	733.3
2019	500.2	684.1	297.8	1,062.8	1,234.5	827.5	1,547.8	1,009.1	927.0

※ 전국 매매건수 = 수도권 매매건수 + 지방 매매건수

- ① 2019년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 중 수도권 아파트 매매건수는 50% 미만이다.
- ② 2006년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 중 수도권 아파트 매매건수는 75% 이상이다.
- ③ 2011년 대비 2019년 서울의 권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인상률은 서북권이 가장 높다.
- ④ 2011년 대비 2019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 인상률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다.
- 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의 모든 권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31. 다음 <표>는 대학졸업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대학졸업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민연금 가입자 수			건강보험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률	
	직장 가입	지역 가입		직장 가입	지역 가입			
전체	307,716	298,435	9,281	347,809	316,433	31,376	79.9	
성	남성	153,377	149,157	4,220	172,387	158,651	13,736	81.1
	여성	154,339	149,278	5,061	175,422	157,782	17,640	78.8
학제	2~3년제	111,363	107,491	3,872	122,846	111,450	11,396	82.0
	4년제	196,353	190,944	5,409	224,963	204,983	19,980	78.8
전공	인문	25,506	24,540	966	29,869	26,256	3,613	75.6
	사회	88,361	85,509	2,852	97,946	91,008	6,938	83.1
	교육	12,848	12,366	482	16,695	15,603	1,092	68.8
	공학	80,699	79,605	1,094	87,861	82,334	5,527	85.0
	자연	27,867	26,743	1,124	32,560	28,272	4,288	75.1
	의약	37,965	37,632	333	41,739	40,662	1,077	87.1
예체능	34,470	32,040	2,430	41,139	32,298	8,841	68.1	

※ 가입률(%) =  $\frac{\text{해당 유형 국민연금(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text{각 유형 전체 근로자 수}} \times 100$

- ① 전체 대학졸업 근로자 수는 40만명 미만이다.
- ②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다.
- ③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3년제 대학졸업자가 4년제 대학졸업자에 비해 높다.
- ④ 성별 건강보험 가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 ⑤ 전공별 건강보험 가입률은 공학전공자가 의약전공자보다 높다.

32. 다음 <표>는 2014~2018년 시·도별 신규 특허 등록 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4~2018년 시·도별 신규 특허 등록 건수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28,315	22,305	25,087	27,527	25,224
부산	2,790	2,281	2,527	3,061	3,412
대구	2,701	2,043	2,365	2,612	2,519
인천	4,351	3,214	3,307	3,400	3,499
광주	1,626	1,298	1,410	1,694	1,765
대전	7,550	5,238	5,492	6,503	5,877
울산	1,284	911	1,016	1,269	1,308
경기	28,275	22,750	23,381	24,820	25,440
강원	1,381	1,090	1,291	1,459	1,479
충북	1,854	1,431	1,670	1,861	1,921
충남	3,598	2,996	3,008	3,492	3,808
전북	1,777	1,338	1,468	1,860	1,995
전남	1,445	1,079	1,201	1,616	1,605
경북	5,723	4,491	4,594	4,633	4,176
경남	3,465	2,840	3,538	3,738	3,751
제주	413	290	305	384	412
세종	179	198	249	307	394
합계	96,727	75,793	81,909	90,236	88,585

- ① 2014년 대비 2018년에 신규 특허 등록 건수가 감소한 시·도는 총 7개다.
- ② 2017년 신규 특허 등록 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시·도는 전남이다.
- ③ 2014년 전체 신규 특허 등록 건수 대비 경북의 신규 특허 등록 건수의 비율은 2016년 전체 신규 특허 등록 건수 대비 경남의 신규 특허 등록 건수의 비율보다 높다.
- ④ 세종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특허 등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상승하였다.
- ⑤ 2015년 대비 2017년의 전체 신규 특허 등록 건수는 15% 이상 증가하였다.

33. 다음 <표>는 2016~2018년 소비자단체별 상담건수 및 상담수당 총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6~2018년 소비자단체별 상담건수 및 상담수당 총계

(단위: 건, 백만원)

소비자 단체명	2016년		2017년		2018년	
	상담건수	상담수당	상담건수	상담수당	상담건수	상담수당
A	4,292	341	90,704	388	100,064	511
B	26,045	103	22,894	104	25,811	138
C	44,831	168	47,433	206	50,225	261
D	43,604	164	43,344	188	50,828	258
E	29,633	115	27,908	129	39,508	211
F	62,421	230	60,640	264	62,071	326
G	25,394	89	25,096	108	20,755	107
H	74,885	273	76,688	326	97,762	490
I	17,030	72	18,333	88	20,280	114
J	20,915	85	16,896	78	18,640	102
합계	349,050	1,640	429,936	1,879	485,944	2,518

\* <표>에 제시된 단체 이외의 소비자단체는 없음

<보 기>

- ㄱ. 전체 소비자단체들을 매년 상담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길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순위가 같은 소비자단체는 6개이다.
- ㄴ. 2017년과 2018년에 C와 D의 상담건수 합은 매년 A의 상담건수보다 크며, C와 D의 상담수당 합 역시 매년 A의 상담수당보다 크다.
- ㄷ. 2016~2018년 동안 매년 상담수당이 많은 상위 3개 소비자단체의 상담건수 합은 그 해 전체 상담건수 합의 50% 이상이다.
- ㄹ. 2017~2018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상담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소비자단체는 4개이다.
- ㅁ. J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단체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상담수당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34. 다음 <표>는 2018회계연도 및 회계연도별(2015~2018년) 의무물자확보 사업 결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8회계연도 의무물자확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의무물자확보	101,000	656	-15,597	0	86,059	919
의약품확보	59,584	16	-9,868	0	49,732	0
의료기재	29,727	423	-4,278	0	25,872	919
장비소모품	10,544	0	-1,255	0	9,289	0
안경제작	1,145	217	-196	0	1,166	0

<표 2> 회계연도별(2015~2018년) 의무물자확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2015	102,984	1,134	605	0	104,723	1,378
2016	107,070	1,378	-2,134	0	106,314	760
2017	102,582	760	-1,955	0	101,387	656
2018	101,000	656	-15,597	0	86,059	919

\* 의무물자확보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은 가능하지만 재이월은 불가능함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보 기>

- ㄱ.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평균보다 2018회계연도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더 크다.
- ㄴ. 2018회계연도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세부사업(의약품확보, 의료기재, 장비소모품, 안경제작) 중 예산액 대비 이·전용 등의 절댓값 비중이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예산액 대비 이·전용 등의 절댓값 비중보다 높은 세부사업은 3개이다.
- ㄷ. 2018회계연도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세부사업 중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많은 세부사업은 1개이며, 2015~2018회계연도 중 의무물자확보 사업의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많은 회계연도는 총 1개년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35. 다음 <표>와 <정보>는 2019년 시·도별 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A~G 중 방독면 확보율 평가기준을 통과한 시·도만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9년 시·도별 민방위대원 수 및 방독면 확보 수  
(단위: 명, 개)

시·도	민방위대원 수	방독면 신규 확보 수	방독면 총 확보 수
A	574,342	14,487	490,474
B	277,292	4,346	173,834
C	169,270	2,985	143,416
D	233,262	4,065	175,610
E	80,727	1,815	62,582
F	84,363	1,887	70,490
G	62,808	556	46,246

<정 보>

- 방독면 신규 확보율(%) =  $\frac{\text{방독면 신규 확보 수}}{\text{민방위대원 수}} \times 100$
- 방독면 총 확보율(%) =  $\frac{\text{방독면 총 확보 수}}{\text{민방위대원 수}} \times 100$
- 방독면 확보율 평가점수

구분	기준	평가점수
방독면 신규 확보율	2% 이상	50점
	1% 이상 2% 미만	30점
	1% 미만	20점
방독면 총 확보율	80% 이상	50점
	70% 이상 80% 미만	20점
	70% 미만	10점

- 방독면 신규 확보율 평가점수와 총 확보율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이면, 방독면 확보율 평가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 ① A, B, D, E
- ② A, C, D, F
- ③ A, C, E, F
- ④ B, C, F, G
- ⑤ B, D, E, G

36. 다음 <표>와 <정보>는 1,500개 기업들의 2017~2019년 재무구조와 영업이익에 따른 기업 분포와 영업이익의 증가율 및 자본 증가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7년과 2018년의 재무구조와 영업이익에 따른 기업 분포 (단위: 개)

재무구조		2018년					합계
		자산 > 부채			자산 ≤ 부채		
2017년	자산 > 부채	영업이익	흑자	적자	흑자	적자	639
		흑자	458	123	35	23	
	적자	103	152	25	42	322	
	자산 ≤ 부채	흑자	57	25	12	145	239
		적자	47	16	27	210	300
합계			665	316	99	420	1,500

<표 2> 2018년과 2019년의 재무구조와 영업이익에 따른 기업 분포 (단위: 개)

재무구조		2019년					합계
		자산 > 부채			자산 ≤ 부채		
2018년	자산 > 부채	영업이익	흑자	적자	흑자	적자	665
		흑자	528	47	73	17	
	적자	148	96	14	58	316	
	자산 ≤ 부채	흑자	45	12	13	29	99
		적자	39	37	126	218	420
합계			760	192	226	322	1,500

\* 2017~2019년 동안 영업이익이 '0'인 기업은 없음

<정 보>

$$t \text{년도 영업이익 증가율}(\%) = \frac{t \text{년도 영업이익} - (t-1) \text{년도 영업이익}}{(t-1) \text{년도 영업이익}} \times 100$$

단, t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은 (t-1)년도와 t년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경우에만 계산한다. 즉, (t-1)년도와 t년도 중 어느 한 연도라도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계산할 수 없다. (t-1)년도의 영업이익이 적자이며 t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t-1)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지만 t년도의 영업이익이 적자이면,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t-1)년도와 t년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적자면 '적자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t \text{년도 자본 증가율}(\%) = \frac{t \text{년도 자본} - (t-1) \text{년도 자본}}{(t-1) \text{년도 자본}} \times 100$$

단, t년도 자본 증가율은 (t-1)년도와 t년도의 자산이 부채를 모두 초과할 때만 계산한다. 즉, (t-1)년도와 t년도 중 어느 한 연도라도 자산이 부채 이하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면 계산할 수 없다. (t-1)년도의 자산이 부채 이하이며, t년도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면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t-1)년도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지만 t년도의 자산이 부채 이하면 '완전자본잠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t-1)년도와 t년도의 자산이 모두 부채 이하면 '완전자본잠식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 ① 2019년에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되면서 그 해에 흑자로 전환된 기업의 수는 2018년에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되면서 그 해에 흑자로 전환된 기업의 수보다 적다.
- ② 2018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들 중 그 해에 완전자본잠식이 지속된 기업의 수는 2019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들 중 그 해에 완전자본잠식이 지속된 기업의 수보다 많다.
- ③ 2018년 자본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그 해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2019년에 자본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의 수의 2배를 초과한다.
- ④ 2018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그 해에 완전자본잠식으로 전환된 기업의 수는 그 해에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된 기업의 수보다 적다.
- ⑤ 2019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 중 그 해에 적자가 발생한 기업의 수는 2018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 중 그 해에 적자가 발생한 기업의 수보다 적다.

37. 다음 <표>는 도로 시설물의 경과연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 B, C, D에 해당하는 시설물(도로옹벽, 도로사면, 도로터널, 도로교량)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도로 시설물의 경과연수 현황

(단위: 개)

구분	A	B	C	D
10년 미만	3,696	1,198	996	1,027
10년 이상 20년 미만	11,006	924	298	2,348
20년 이상 30년 미만	8,507	241	55	525
30년 이상 40년 미만	2,627	53	25	271
40년 이상	1,281	32	9	20

$$* \text{고령화율}(\%) = \frac{30 \text{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수}}{\text{전체 시설물 수}} \times 100$$

<조 건>

-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도로 시설물은 도로교량이다.
- 경과연수가 40년 이상인 시설물 중 도로사면과 도로옹벽을 합하면 도로터널보다 많다.
- 도로옹벽의 고령화율은 도로터널의 고령화율보다 높다.
- 전체 시설물 중 경과연수가 10년 미만인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로옹벽이 도로사면보다 크다.

	A	B	C	D
①	도로교량	도로옹벽	도로터널	도로사면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옹벽	도로사면
③	도로교량	도로사면	도로터널	도로옹벽
④	도로사면	도로터널	도로옹벽	도로교량
⑤	도로사면	도로옹벽	도로교량	도로터널

38. 다음 <표>는 2019년 상위 10개국 물류수행지표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9년 상위 10개국 물류수행지표 현황

구분	전체		인프라		국제표준		물류품질		화물추적		정시성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독일	1	4.27	1	4.44	8	3.86	1	4.28	3	4.28	2	4.51
룩셈부르크	2	4.26	3	4.25	4	3.97	2	4.25	1	4.38	3	4.44
스웨덴	3	4.24	4	4.23	1	4.22	10	3.99	8	4.12	1	4.62
네덜란드	4	4.21	2	4.29	6	3.94	3	4.22	6	4.17	5	4.41
싱가포르	5	4.17	14	4.05	3	4.05	6	4.09	4	4.22	4	4.43
벨기에	6	4.14	6	4.20	5	3.96	5	4.13	10	4.05	6	4.38
오스트리아	7	4.12	12	4.06	9	3.79	4	4.14	2	4.29	7	4.34
영국	8	4.10	5	4.21	11	3.77	7	4.05	7	4.13	8	4.33
홍콩	9	4.09	10	4.10	2	4.12	16	3.92	14	4.03	9	4.29
미국	10	4.05	8	4.15	19	3.65	8	4.01	5	4.20	14	4.25

※ 상위 10개국은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함  
 ※ 각 지표별 만점은 5점이며, 전체 점수는 각 지표별 점수의 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보 기>

- ㄱ. 제시된 10개 국가 중 5개 지표별 순위의 합이 세 번째로 작은 국가는 스웨덴이다.
- ㄴ. 각 지표별로 상위 1~5위 국가의 지표별 점수의 평균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정시성-인프라-물류품질-화물추적-국제표준 순이다.
- ㄷ. 제시된 10개 국가의 물류수행지표에 매출액 지표를 추가할 때, 각 국가의 매출액 점수가 인프라 점수와 동일하다면 미국의 전체 점수 순위가 홍콩의 전체 점수 순위보다 높아진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39~40] 다음 <표>는 2016~2018년 국가별 수출·수입액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표> 2016~2018년 국가별 수출·수입액

(단위: 백만달러)

대륙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아시아	한국	495,426	406,193	573,694	478,478	604,860	535,202
	이스라엘	60,401	65,805	61,126	69,151	62,159	79,261
	터키	142,696	198,569	157,174	233,758	168,228	222,444
북아메리카	캐나다	393,452	412,863	423,395	442,574	451,776	468,665
	멕시코	373,939	387,064	409,401	420,369	450,572	464,277
	미국	1,451,024	2,249,944	1,546,273	2,408,476	1,664,085	2,614,327
유럽	라트비아	145,139	150,123	160,294	166,626	177,211	183,910
	벨기에	398,218	379,377	430,496	408,861	464,385	447,934
	체코	162,716	143,041	182,236	163,374	202,626	184,893
	덴마크	95,206	85,270	101,663	92,363	107,753	101,398
	독일	1,334,355	1,055,326	1,447,992	1,162,751	1,560,983	1,285,442
	그리스	28,052	48,205	32,501	56,656	39,500	65,119
	헝가리	102,979	91,400	113,675	103,782	123,850	115,971
	네덜란드	570,606	500,797	651,975	574,563	721,236	643,793
	폴란드	203,936	199,623	234,253	233,704	260,533	266,427
	스페인	287,213	310,615	319,442	351,023	343,836	386,073
	스웨덴	139,291	140,985	152,905	154,196	165,936	170,164
	스위스	213,821	176,220	224,079	188,820	238,490	206,456
	영국	404,262	583,463	436,465	612,971	468,053	652,252
오세아니아	호주	192,466	196,192	231,055	228,772	257,183	235,374
	뉴질랜드	33,753	35,935	38,102	40,128	39,613	43,876

※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 무역수지 > 0: 흑자, 무역수지 < 0: 적자

39.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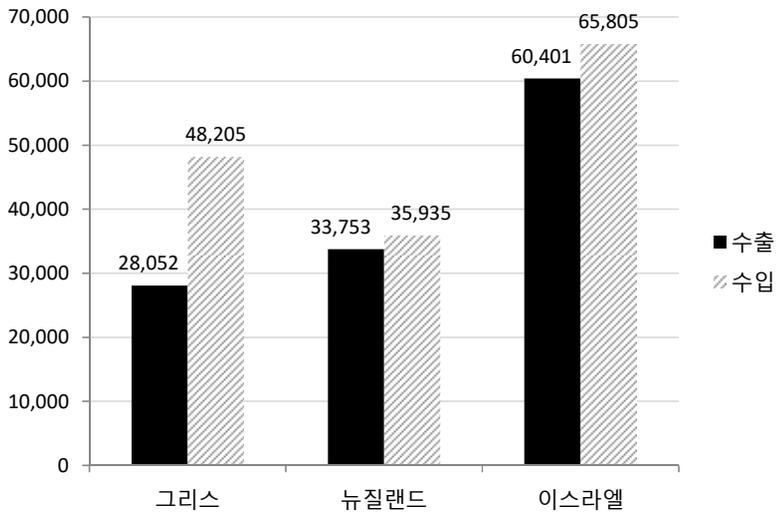
- ㄱ. <표>에 제시된 국가들 중 2018년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9개이다.
- ㄴ. <표>에 제시된 아시아 국가들 중 2016년 대비 2018년 수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국가는 2개이다.
- ㄷ. <표>에 제시된 유럽 국가들 중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 수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감소하였다.
- ㄹ. <표>에 제시된 국가들 모두 2017년과 2018년에 수입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40. 다음 중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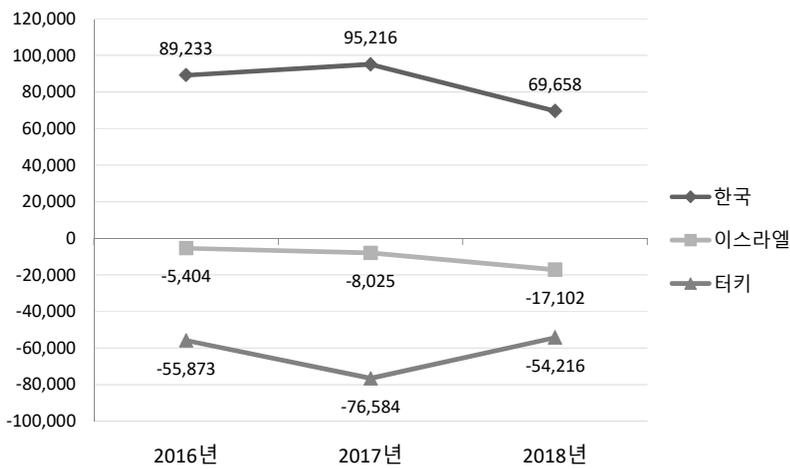
① 2016년 그리스·뉴질랜드·이스라엘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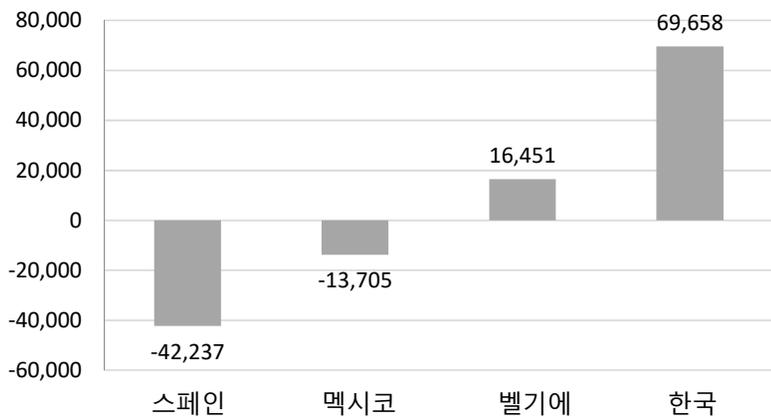
② 2016~2018년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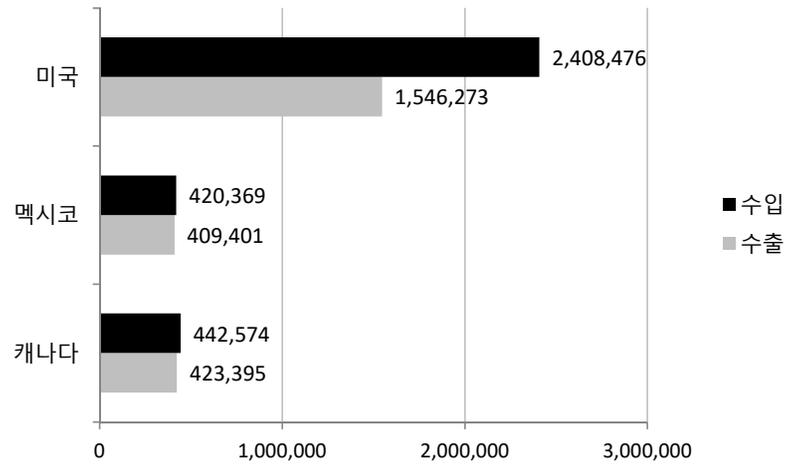
③ 2018년 스페인·멕시코·벨기에·한국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④ 2017년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⑤ 2018년 주요 5개국(영국·한국·네덜란드·독일·미국) 수출액 합 대비 각국의 수출액 비중

